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8호 [루게 제23435호] 주제 100 (2011)년 4월 28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경적인 독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나 역시 수리아와 조선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중동지역의 모든 미결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당신들의 립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1년 4월 25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수산대표단 단장과 엘더즈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 이 크라이나단장이 27일 해당 부분 일
을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수산대표단 단장 군에게 전달하였다.
이 선물은 올리였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
선물을 로씨야연방 수산총국장인 안드레 를 방문하고있는 엘더즈대표단이 선물들
본사기자

집단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철산봉이 철정광증산으로 들끓는다

공동사업의 전투적업권업에 펼쳐나선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생산물격진을 과감하게 벌여 철정광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년초부터 편일 집단적혁신의 불길들 새차게 지펴올려 1.4분기계획을 완수한 이들은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창조와 위훈의 한걸음 계속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도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체굴 및 운반설비들의 대형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높이 세우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느것과 함께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으며 선광계통의 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련합기업소에서는 대발파에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쇄들의 파쇄립도를 개선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하고 많은 로력과 자재, 동력, 원료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발파효율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였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선행공정들에서 생산적양상이 일어나는데 맞게 생산공정간 련계를 보다 긴밀히 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주도밀하게 하고있다.
당, 행정일군들이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으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위생문화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떠나서는 예방의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불철위생월간사업은 4월의 불명절을 계기로 더욱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월간사업에 반영된 모든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가정과 일터, 거리와 마을들의 면모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근

로선들에서 출퇴근시간을 리용한 보건일군위생선전을 실효있게 진행하여 전국적인 본보기기를 창조하였다.
도, 시, 군위생지도위원회들에서는 국도관리사업, 도시미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형통과 배합작전을 짜고들었다.
올해의 불철위생월간에 모든 단위 위생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양상과 함께 남도의 뒤를 전국의 도, 시, 군들이 따라나섰다.
현지지도단위들이 앞장서고 군중적으로 벌어진 올해의 불철위생월간사업은 위생

《선군정치는 평화수호의 보검》

남녘인민들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정세트로도중에 이런 말을 하여 학생들을 감동시킨적이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선군정치의 덕으로 가장 힘있는 민족으로 되었다. 우리 민족이 누리는 선군의 덕을 어찌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악마의 세력에 의해 삼천리가 불바다가 되고 민족이 대참화를 당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준것도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이고 분별의 아픔에 스며들하는 겨레에게 새 세기 통일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안겨주고 민족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준것도 장군님의 선군정치이다. 조선민족에게 분별을 강요한 외세의 간섭과 전쟁책동을 막고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민족의 힘이 강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힘은 다름아닌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있다.》
남녘겨레들은 선군정치를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생명선인뿐 아니라 통일과 번영의 대문을 여는 행운의 열쇠》, 《애국애족의 방패, 평화수호의 보검》으로 찬양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만이 민족이 살길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나고있다. 하기에 남녘땅에서는 선군령도 김정일장군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그이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것이 막을수 없는 대세, 민심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한 력사학자는 《김정일군방위위원장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민중이라고 하시며 이북군을 령도하시는 수직성상 군사중시리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시였다. 하기에 오늘 이북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라고 확인하였다.
한 세아인사는 동료들에게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다.
《이남의 민심은 이북의 막강한 군사력이 미국의 침략과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수단, 애국애족의 방패라고 확신하고있다. 미국이 이북을 선제타격하겠다는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보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남민심은 이 땅의 평화를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이북의 강력한 군력, 다시말하여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지켜주고있음을

본사기자

원군은 최대의 애국

◇전군에게 즈음하여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앞으로 많은 편지들이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훌륭한 대학생들을 키워낸 대학의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정과 가정들에 넘치는 원군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의 대화는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오고있다. 병사들을 내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며 지성어린 원호를 보내주며 마땅히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고있는 사랑들은 수없이 많다. 원군이 평범한 가정들의 가정으로 되고 온 사회의 미풍으로 발달되는 나라는 오직 위대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밖에 없다.
◇원군의 길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며 원군의 미풍속에 선군시대가 빛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해전 전국원군미풍결성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원군사업의 앞장에서 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전사,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원군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유격투쟁을 피로써 사수한 소망청인민들,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을 헤쳐며 싸우는 고지에

비금속봉형적외선복사체 개발

국가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에서
최근 국가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에서 실리가 큰 비금속봉형적외선복사체를 개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신화시켜 모든 분야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하겠소이다.》
적외선복사체는 가열조차러는 물체를 빨리 가열할뿐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가열하여 건조속도를 훨씬 높여준다. 그러므로 봉형이나 판형으로 적외선복사체를 만들어 가열건조공정에 받아들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미 오메건부채 투성이 좋은 면적외선복사체를 개발하고 그

본사기자 오 현

본사기자 김 현 철

